

3. 전라남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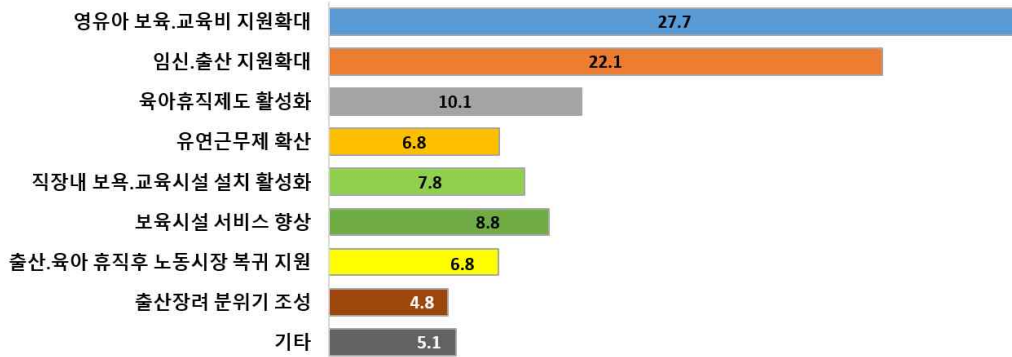
-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 3-2 이상적인 자녀 수
-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 3-5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 3-6 금연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 3-14 야간활동 안전성
-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 3-17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 3-18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 3-19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저출산 문제 해결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응답이 27.7%로 가장 많고, 「임신·출산 지원확대(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22.1%, 「출산·육아 휴직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10.1%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은 2021년 26.0%(1,2순위 합산)에서 2023년 27.7%로 증가함.
- 지역별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33.2%), 북부권(27.0%), 서남부권(23.9%) 순으로 나타남.
- 남자(27.8%)와 여자(27.5%) 모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15~29세와 40대는 「임신·출산 지원확대」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표 3-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중복응답

(단위: %)

구분	계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임신·출산 지원확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내 보육·교육 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	출산·육아 휴직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기타(주택 문제 등)
2017년 1순위	100.0	50.8	11.2	11.0	5.4	9.2	4.5	3.9	3.2	0.7
2019년 1순위	100.0	43.9	11.9	13.8	6.3	9.8	3.9	6.0	4.0	0.4
2021년 1순위	100.0	49.8	17.2	10.1	5.8	7.1	4.2	3.4	1.9	0.5
2021년 2순위	100.0	2.2	19.3	9.9	9.5	16.7	18.9	17.5	5.9	0.1
2023년	100.0	27.7	22.1	10.1	6.8	7.8	8.8	6.8	4.8	5.1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3.2	21.4	8.4	6.7	5.1	6.8	5.0	5.8	7.5
북부권	100.0	27.0	23.6	9.2	8.3	8.2	9.5	7.6	3.0	3.5
서남부권	100.0	23.9	22.0	11.7	6.1	9.6	10.0	7.6	4.9	4.2
< 성 별 >										
남자	100.0	27.8	22.3	8.7	6.4	8.7	9.1	6.3	4.9	5.8
여자	100.0	27.5	21.9	11.8	7.3	6.8	8.4	7.4	4.6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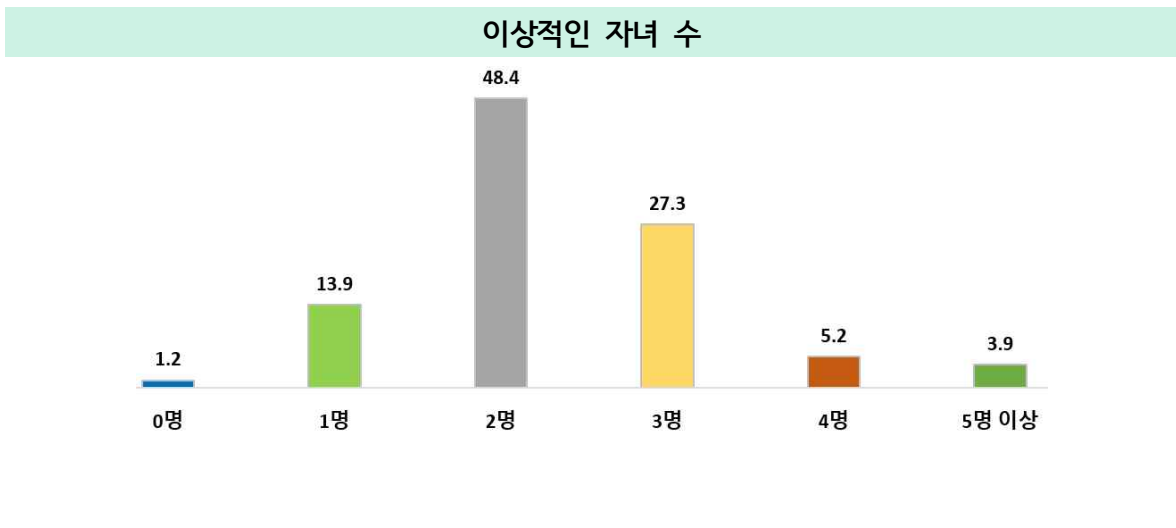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2 이상적인 자녀 수

이상적인 자녀 수 평균 「2.3명」

-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이 48.4%로 가장 많고, 「3명」 27.3%, 「1명」 12.9%, 「4명」 5.2%, 「5명 이상」 3.9%, 「0명」 1.2% 순으로 나타남. 자녀수는 평균 2.3명으로 2021년(2.5명)대비 감소함.

- 지역별로 서남부권이 평균 2.5명으로 가장 많고, 북부권(2.4명), 중부권(2.1명)순으로 나타남.
- 남자(2.2명)보다 여자(2.5명)의 이상적인 자녀수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70세 이상은 「3명」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명」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15~29세는 평균 1.6명, 70세 이상은 평균 2.9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 평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3-2] 이상적인 자녀 수

(단위: %)

구분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평균(명)
2017년	100.0	0.9	9.2	56.2	22.5	8.5	2.7	2.4
2019년	100.0	1.5	17.3	55.6	17.8	7.0	0.9	2.1
2021년	100.0	0.8	9.4	45.6	31.2	9.1	3.9	2.5
2023년	100.0	1.2	13.9	48.4	27.3	5.2	3.9	2.3
< 지역별 >								
중부권	100.0	1.6	19.7	57.5	16.9	1.9	2.4	2.1
북부권	100.0	3.0	19.7	36.5	26.0	9.4	5.5	2.4
서남부권	100.0	0.0	6.5	48.7	35.6	5.2	4.0	2.5
< 성별 >								
남자	100.0	1.7	15.6	51.9	24.5	3.5	2.8	2.2
여자	100.0	0.7	12.0	44.3	30.7	7.2	5.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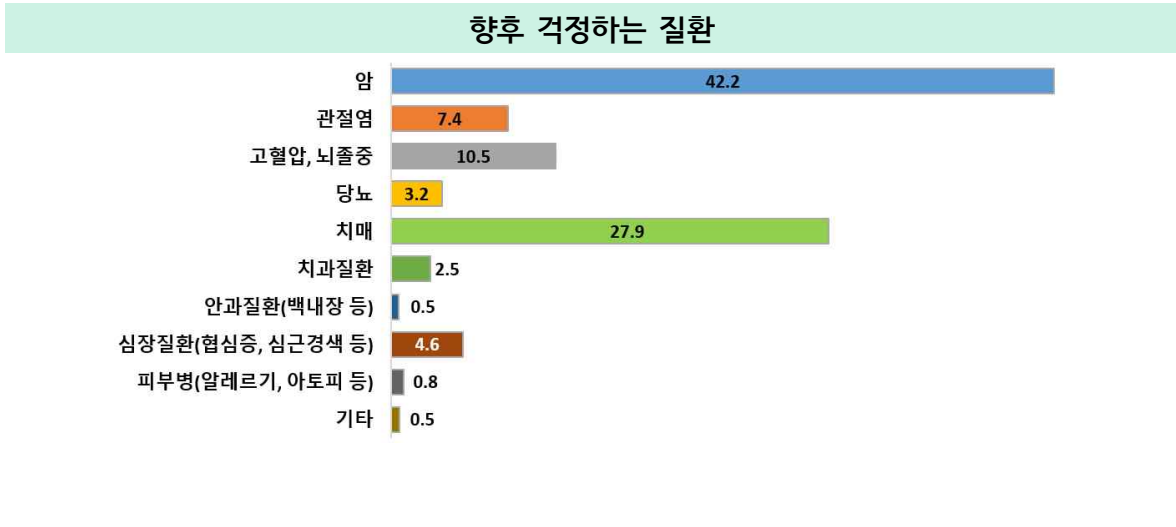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향후 가장 걱정되는 질환은 「암」

- 향후 걱정하는 질환으로 「암」 응답이 42.2%로 가장 많고, 「치매」 27.9%, 「고혈압, 뇌졸중」 10.5% 순으로 나타남.

- 「암」 응답은 2021년 38.4%에서 2023년 42.2%로 증가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암」 응답이 가장 많고, 「암」 응답은 중부권(47.7%), 북부권(42.9%), 서남부권(37.8%) 순으로 조사됨.
- 남자(44.9%)와 여자(39.1%) 모두 「암」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70세 이상은 「치매」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다른 연령대에서는 「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향후 걱정하는 질환

(단위: %)

구분	계	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치매	치과질환	안과질환(백내장 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피부병(알레르기, 아토피 등)	기타
2021년	100.0	38.4	6.8	10.4	3.2	32.2	3.6	0.3	4.0	0.4	0.5
2023년	100.0	42.2	7.4	10.5	3.2	27.9	2.5	0.5	4.6	0.8	0.5
<지역별>											
중부권	100.0	47.7	9.4	10.3	2.3	21.3	4.1	0.8	3.8	0.0	0.2
북부권	100.0	42.9	9.6	12.8	4.1	20.3	2.6	0.5	3.9	2.3	0.9
서남부권	100.0	37.8	4.7	9.2	3.3	37.0	1.2	0.2	5.5	0.5	0.6
<성별>											
남자	100.0	44.9	5.0	11.5	3.5	22.1	3.9	0.7	6.7	1.0	0.5
여자	100.0	39.1	10.2	9.2	2.8	34.6	0.8	0.2	2.1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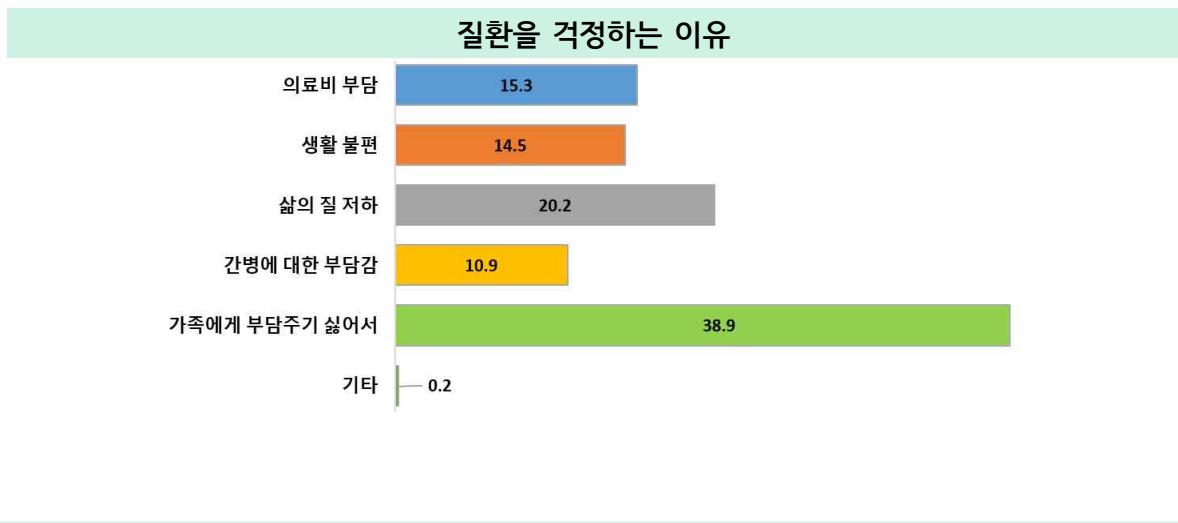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는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38.9%로 가장 많고, 「삶의 질 저하」 20.2%, 「의료비 부담」 15.3% 순으로 나타남.

-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은 2021년 31.6%에서 2023년 38.9%로 증가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43.5%), 서남부권(37.3%), 북부권(35.8%) 순으로 나타남.
- 남자(38.0%)와 여자(39.9%) 모두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40대는 「생활 불편」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4]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

(단위: %)

구분	계	의료비 부담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간병에 대한 부담감	가족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기타
2021년	100.0	23.0	17.1	18.8	9.2	31.6	0.4
2023년	100.0	15.3	14.5	20.2	10.9	38.9	0.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5.7	15.6	15.0	10.3	43.5	0.0
북부권	100.0	11.3	20.2	24.4	7.6	35.8	0.8
서남부권	100.0	17.3	10.5	21.6	13.2	37.3	0.0
< 성 별 >							
남자	100.0	14.4	13.4	22.6	11.4	38.0	0.2
여자	100.0	16.3	15.9	17.4	10.3	39.9	0.2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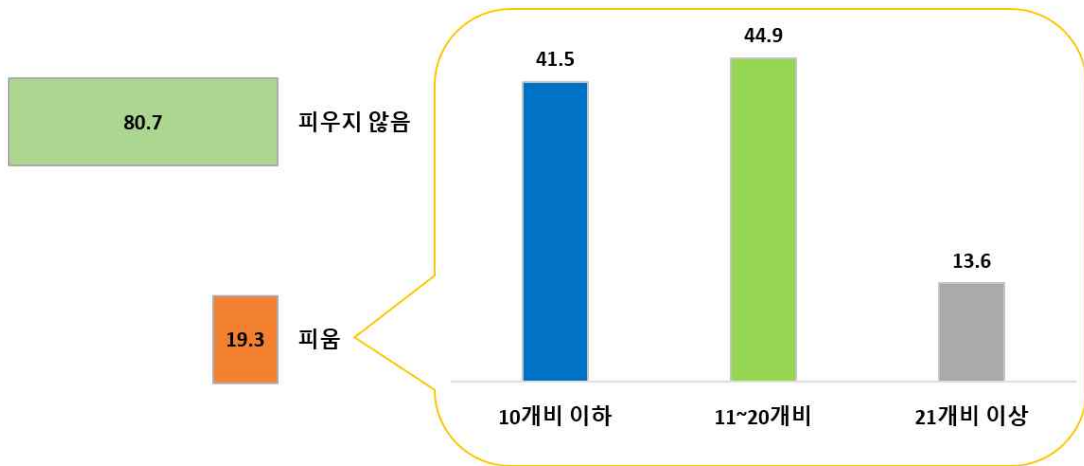
3-5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흡연 19.3%, 하루 평균 「11~20개비」

• 흡연율은 19.3%이며, 하루 평균 「11~20개비」 응답이 44.9%로 가장 많고, 「10개비 이하」 41.5%, 「21개비 이상」 13.6% 순으로 나타남.

- 흡연율은 2021년 19.0%에서 2023년 19.3%로 증가함.
- 지역별로 흡연율은 중부권(22.1%), 북부권(20.0%), 서남부권(17.0%) 순으로 나타남.
- 여자(0.5%)보다 남자(35.4%)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50대(30.1%)의 흡연율이 가장 많고, 30대(29.3%), 40대(27.1%) 순으로 분석됨.
- 직업별로 전문/관리직(29.0%) 종사자의 흡연율이 가장 높고, 사무직(10.6%) 종사자의 흡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표 3-5] 흡연여부 및 흡연정도

(단위: %)

구분	계	흡연					피우지 않음			
		소계	10개비 이하	11~20개비	21개비 이상	소계	끊었음	피운적 없음		
2017년	100.0	17.9	100.0	49.2	47.7	3.0	82.1	100.0	20.3	79.7
2019년	100.0	16.5	100.0	44.4	51.5	4.0	83.5	100.0	18.9	81.1
2021년	100.0	19.0	100.0	29.8	61.1	9.1	81.0	100.0	23.0	77.0
2023년	100.0	19.3	100.0	41.5	44.9	13.6	80.7	100.0	26.8	73.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22.1	100.0	50.6	40.1	9.3	77.9	100.0	35.8	64.2
북부권	100.0	20.0	100.0	17.1	50.4	32.4	80.0	100.0	22.6	77.4
서남부권	100.0	17.0	100.0	49.4	45.6	5.0	83.0	100.0	23.0	77.0
< 성 별 >										
남자	100.0	35.4	100.0	41.0	45.2	13.8	64.6	100.0	57.4	42.6
여자	100.0	0.5	100.0	80.9	19.1	0.0	99.5	100.0	3.4	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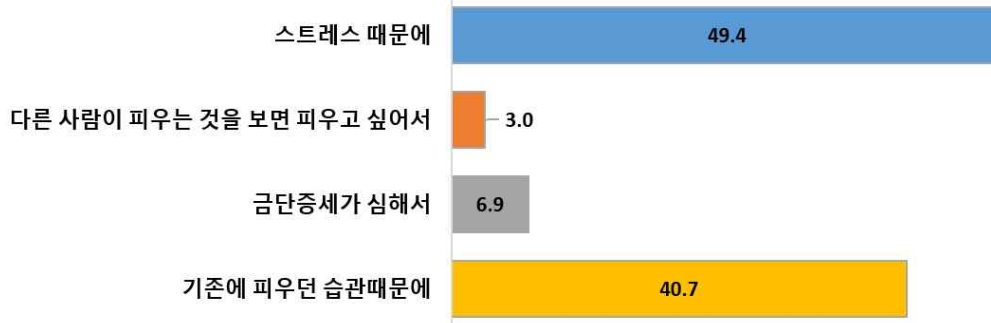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6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금연 시도 54.2%,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 실패

- 현재 흡연하는 응답자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금연 시도 응답은 54.2%이며,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에」(49.4%),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40.7%) 순으로 나타남.
- 금연 시도 응답은 2021년 52.9%에서 2023년 54.2%로 증가함.
- 지역별로 금연 시도는 북부권(69.7%), 중부권(56.2%), 서남부권(34.8%) 순이며, 금연이 어려운 이유로 중부권(56.2%)과 북부권(69.7%)은 「스트레스 때문에」, 서남부권은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53.0%)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남자(53.6%)보다 여자(100.0%)의 금연 시도 응답이 많음. 남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자는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연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금연 시도는 40대(66.0%)가 가장 많고, 15~29세(13.7%)가 가장 적음.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표 3-6] 금연 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계	금연을 시도한 적 있음	금연이 어려운 이유						시도한 적 없음
			소계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우는 것을 보면 피우고 싶어서	금단증세가 심해서	기존에 피우던 습관때문에	기타	
2017년	100.0	46.1	100.0	63.1	4.9	7.1	24.9		53.9
2019년	100.0	38.1	100.0	62.0	3.6	5.3	28.4	0.6	61.9
2021년	100.0	52.9	100.0	42.3	8.5	9.9	39.4		47.1
2023년	100.0	54.2		49.4	3.0	6.9	40.7		45.8
< 지역 별 >									
중부권	100.0	70.6		56.2	0.0	7.7	36.1		29.4
북부권	100.0	27.6		69.7	10.6	0.0	19.7		72.4
서남부권	100.0	56.8		34.8	4.0	8.2	53.0		43.2
< 성 별 >									
남자	100.0	53.6		50.2	1.6	7.1	41.1		46.4
여자	100.0	100.0		16.9	59.6	0.0	23.6		0.0

자료: 2023년 신한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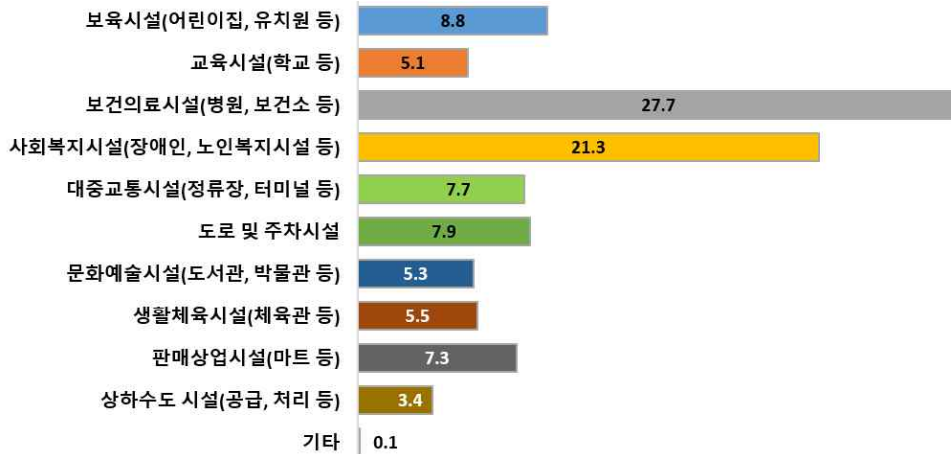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필요한 편의시설 「보건의료시설」

-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응답이 27.7%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21.3%,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8.8% 순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시설」 응답은 2021년 23.4%(1,2순위 합산)에서 2023년 27.7%로 증가함.
- 지역별로 중부권(23.4%), 서남부권(33.7%)은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많고, 북부권은 「사회복지시설」(24.1%)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26.1%)와 여자(29.6%) 모두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70세 이상은 「사회복지시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보건의료시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표 3-7] 필요한 편의시설 수요 (2개까지 중복응답)

(단위: %)

구분	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학교 등)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정류장, 터미널 등)	도로 및 주차시설	문화예술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생활체육시설(체육관 등)	판매상업시설(마트 등)	상하수도 시설(공급, 처리 등)	기타
2021년 1순위	100.0	10.7	9.9	38.3	15.2	5.4	6.6	8.1	3.3	1.4	1.1	
2021년 2순위	100.0	1.5	4.0	8.5	24.6	6.6	17.0	9.8	14.4	11.6	2.1	
2023년	100.0	8.8	5.1	27.7	21.3	7.7	7.9	5.3	5.5	7.3	3.4	0.1
< 지역 별 >												
중부권	100.0	8.7	12.0	29.5	16.2	8.3	5.2	13.8	9.9	7.1	0.5	0.2
북부권	100.0	4.6	3.5	31.6	12.2	19.1	6.4	8.9	12.6	11.8	0.8	0.0
서남부권	100.0	8.0	6.6	22.9	22.5	11.5	5.5	8.0	8.5	14.2	3.8	0.0
< 성 별 >												
남자	100.0	7.3	8.1	25.0	14.6	13.3	6.9	12.7	12.4	9.8	1.1	0.3
여자	100.0	7.7	7.8	27.1	13.6	12.5	5.6	14.1	11.1	10.2	1.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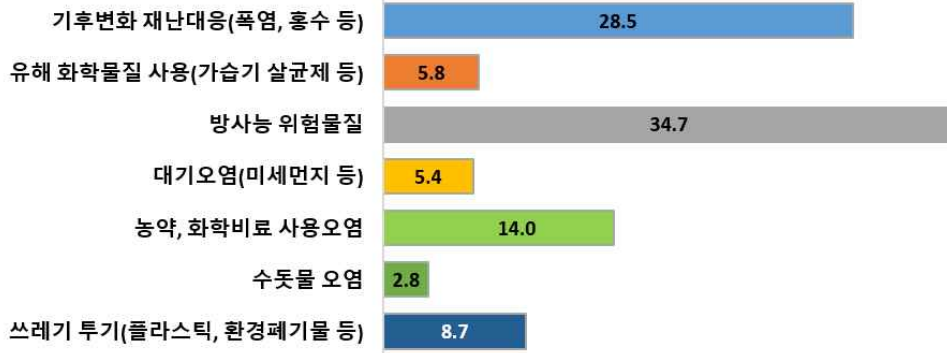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 「방사능 물질위험」

-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는 「방사능 물질위험」 응답이 34.7%로 가장 많고, 「기후변화 재난대응(폭염, 홍수)」 28.5%, 「농약, 화학비료 사용오염」 14.0% 순으로 나타남.
- 「방사능 물질위험」 응답은 2021년 5.1%에서 2023년 34.7%로 증가함
- 지역별로 중부권(38.0%), 서남부권(36.9%)은 「방사능 물질위험」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35.7%)와 여자(33.6%) 모두 「방사능 물질위험」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30대는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방사능 물질위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표 3-8] 우선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환경문제

(단위: %)

구분	계	기후변화 재난대응(폭염, 홍수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가습 기 살균제 등)	방사능 위험물질	대기오염(미세먼지 등)	농약, 화학비료 사용오염	수돗물 오염	쓰레기 투기(플라 스틱, 환경폐기 물 등)	기타
2019년	100.0	15.1	8.1	10.7	42.7	2.8	3.6	17.0	0.1
2021년	100.0	25.4	4.8	5.1	15.5	15.0	2.1	32.1	
2023년	100.0	28.5	5.8	34.7	5.4	14.0	2.8	8.7	
< 지역별 >									
중부권	100.0	18.2	6.0	38.0	5.0	20.5	0.5	11.7	
북부권	100.0	36.9	3.7	26.8	5.3	20.9	0.4	6.1	
서남부권	100.0	31.2	6.9	36.9	5.9	5.4	5.7	8.0	
< 성별 >									
남자	100.0	28.3	6.3	35.7	6.0	12.7	2.0	9.0	
여자	100.0	28.8	5.3	33.6	4.8	15.6	3.6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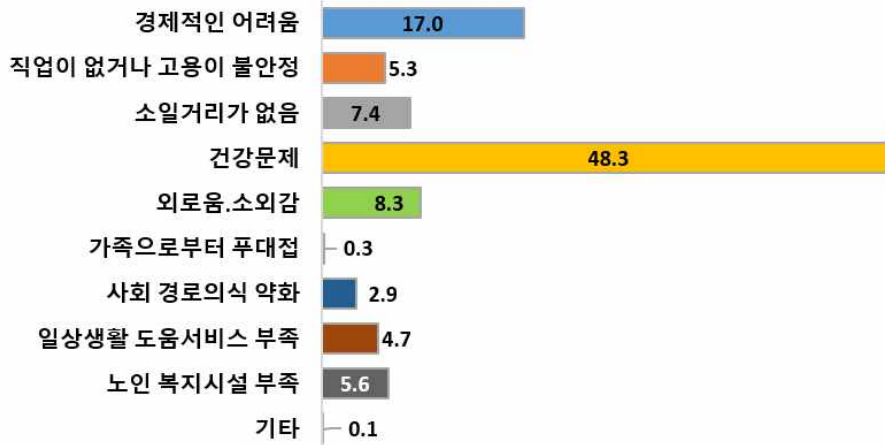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건강문제」

-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48.3%)가 가장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17.0%), 「외로움, 소외감」(8.3%) 순으로 나타남.
- 「건강문제」 응답은 2021년 42.5%(1,2순위 합산)에서 2023년 48.3%로 증가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건강문제」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53.0%), 북부권(51.9%), 중부권(39.8%) 순으로 나타남.
- 남자(47.2%)와 여자(48.8%) 모두 「건강문제」 응답이 가장 많음.
-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외로움, 소외감」 응답이 가장 많고,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은 「건강문제」 응답이 가장 많음.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표 3-9]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65세 이상, 2개까지 중복응답)

(단위: %)

구분	계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이 없거나 고용이 불안정	소일거리가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사회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시설 부족	기타
2017년 2순위	100.0	34.3	4.5	10.2	36.1	7.5		2.6	1.8	3.1	
2019년 1순위	100.0	47.4	4.1	14.4	23.0	5.8	0.3	1.9	0.5	2.7	
2019년 2순위	100.0	28.7	1.5	8.3	49.6	5.4	0.5	1.7	1.6	2.2	0.5
2021년	100.0	5.6	1.3	3.9	35.4	23.8	0.5	8.7	9.7	11.2	
2023년	100.0	17.0	5.3	7.4	48.3	8.3	0.3	2.9	4.7	5.6	0.1
< 지역 별 >											
중부권	100.0	20.9	6.0	7.5	39.8	9.4	0.2	5.2	4.1	6.9	0.0
북부권	100.0	13.7	7.7	8.2	51.9	5.9	0.9	3.1	5.2	3.1	0.4
서남부권	100.0	15.7	3.4	7.0	53.0	8.8	0.0	1.0	5.0	6.1	0.0
< 성 별 >											
남자	100.0	18.5	5.9	7.1	47.2	7.1	0.3	3.9	3.8	6.3	0.0
여자	100.0	15.7	4.9	7.5	48.8	9.8	0.2	2.2	5.6	5.1	0.1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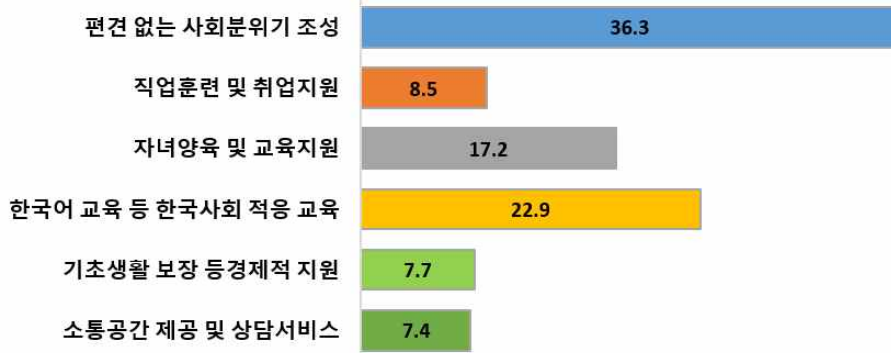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36.3%로 가장 많고,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22.9%, 「자녀양육 및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17.2% 순으로 나타남.

-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은 2021년 35.3%에서 2023년 36.3%로 증가함.
- 지역별로 중부권(42.4%), 서남부권(37.4%)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35.7%)은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남자(39.5%)와 여자(32.5%) 모두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이 가장 많고,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응답은 30대(43.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표 3-10]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단위: %)

구분	계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	기초생활 보장 등경제적 지원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상담서비스	기타
2017년	100.0	50.2	13.5	8.0	24.5	3.7	-	0.1
2019년	100.0	40.1	15.4	12.1	20.5	7.0	4.9	
2021년	100.0	35.3	10.0	17.6	19.1	10.3	7.8	
2023년	100.0	36.3	8.5	17.2	22.9	7.7	7.4	
<지역별>								
중부권	100.0	42.4	11.7	16.5	9.5	8.2	11.7	
북부권	100.0	26.6	6.2	19.5	35.7	9.9	2.1	
서남부권	100.0	37.4	7.5	16.4	25.3	6.0	7.4	
<성별>								
남자	100.0	39.5	7.9	18.3	20.6	5.5	8.2	
여자	100.0	32.5	9.2	16.0	25.6	10.2	6.5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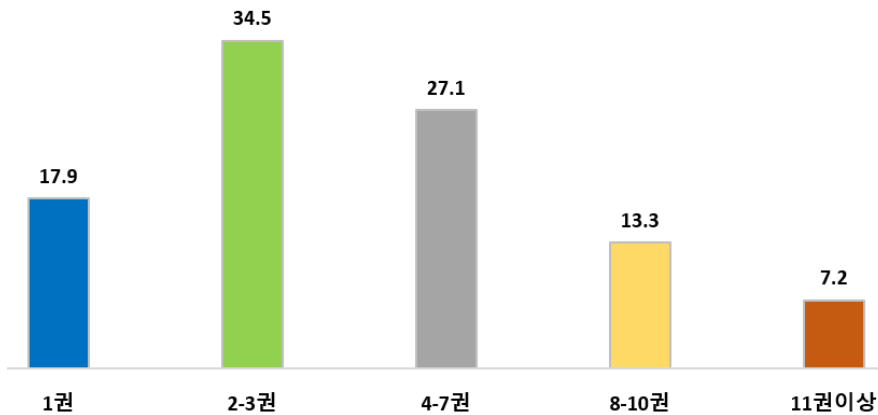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독서 48.0%, 연평균 5.2권

•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응답자는 48.0%이며, 연평균 5.2권임.

- 독서 응답자는 2021년 41.8%에서 2023년 48.0%로 증가함. 1년 동안 읽은 책은 2021년 평균 4.4권에서 2023년 5.2권으로 증가함.
- 지역별로 독서는 서남부권(57.7%), 북부권(50.1%), 중부권(32.8%) 순이며, 연평균 독서권수는 중부권(6.9권), 서남부권(4.8권), 북부권(4.5권) 순으로 나타남.
- 여자(45.4%)보다 남자(50.2%)의 독서 응답이 많고, 연평균 독서권수는 남자 5.9권, 여자 4.2권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15~29세(83.1%, 9.2권)가 가장 독서를 많이 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독서와 독서량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독서여부 및 독서량



[표 3-11] 독서여부 및 독서량

(단위: %)

구 분	계	읽음								안읽음
		소계	1권	2-3권	4-7권	8-10권	11권이상	연평균 독서권수		
2017년	100.0	62.3	100.0	17.5	17.5	15.1	3.5	14.7	8.01	37.7
2019년	100.0	60.7	100.0	18.2	40.3	21.9	12.0	7.5	5.68	39.3
2021년	100.0	41.8	100.0	23.4	40.5	22.9	5.8	7.8	4.4	58.2
2023년	100.0	48.0		17.9	34.5	27.1	13.3	7.2	5.2	52.0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2.8		11.1	20.8	45.0	13.6	9.5	6.9	67.2
북부권	100.0	50.1		17.8	39.6	26.4	10.9	5.3	4.5	49.9
서남부권	100.0	57.7		20.7	37.6	20.2	14.3	7.2	4.8	42.3
< 성 별 >										
남자	100.0	50.2		15.1	31.7	28.7	15.0	9.4	5.9	49.8
여자	100.0	45.4		21.5	38.1	25.1	10.9	4.4	4.2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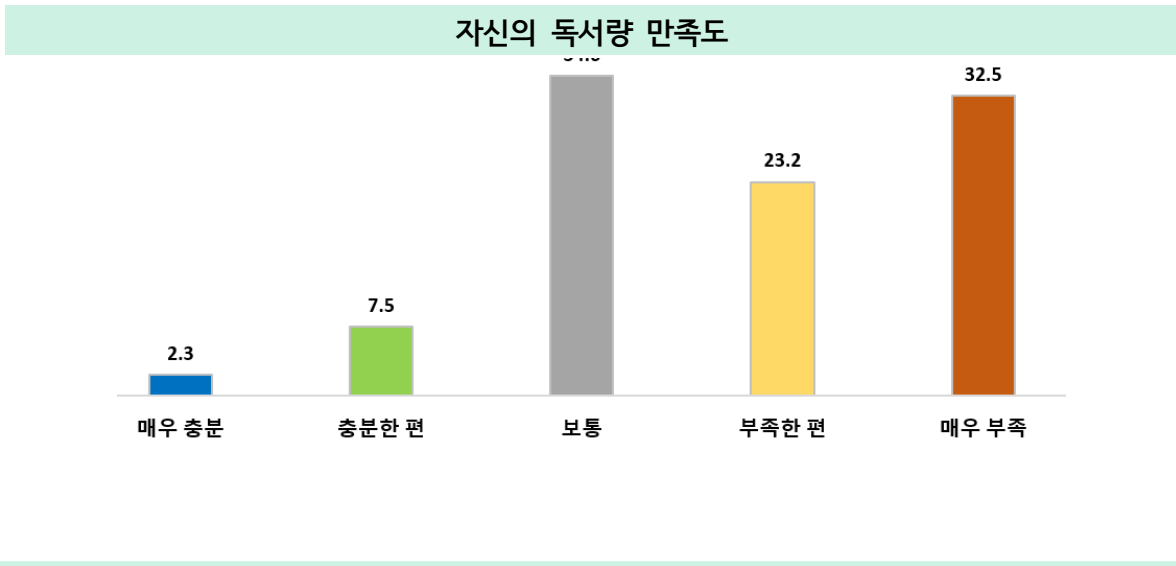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자신의 독서량 「부족한 편」

- 자신의 독서량에 대하여 「부족하다」(55.6%)고 느끼고 있으며, 「보통」 34.6%, 「충분하다」 9.7% 순으로 나타남.

-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021년 56.7%에서 2023년 55.6%로 증가함.
- 지역별로 「부족하다」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62.8%), 북부권(56.4%), 서남부권(50.0%) 순임.
- 남자(54.4%)와 여자(57.1%) 모두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충분하다」 응답은 15~29세(23.6%)가 가장 많고, 「부족하다」 응답은 70세 이상(71.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자신의 독서량 만족도

(단위: %)

구 분	계	충분하다			보통	부족하다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부족한 편		매우 부족			
2017년	100.0	7.2	2.6	4.6	26.0	66.8	30.8	36.0	
2019년	100.0	9.3	3.6	5.7	29.5	61.2	25.7	35.5	
2021년	100.0	7.5	1.5	6.0	35.8	56.7	28.5	28.2	
2023년	100.0	9.7	2.3	7.5	34.6	55.6	23.2	32.5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1.6	4.5	7.2	25.6	62.8	13.6	49.2	
북 부 권	100.0	9.6	2.0	7.7	33.9	56.4	21.1	35.4	
서 남 부 권	100.0	8.4	0.8	7.6	41.5	50.0	31.3	18.7	
< 성 별 >									
남 자	100.0	10.9	1.8	9.1	34.7	54.4	22.9	31.5	
여 자	100.0	8.4	2.8	5.6	34.5	57.1	23.5	33.6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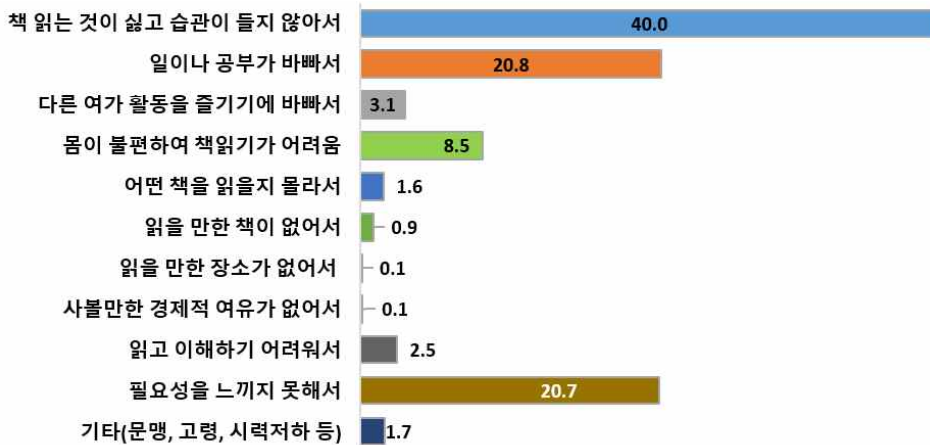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 자신의 독서량에 대하여 「부족하다(부족한편이다+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 대상으로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40.0%) 응답이 가장 많고,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20.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0.7%) 순으로 나타남.

-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응답은 2021년 34.8%에서 2023년 40.0%로 증가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43.9%), 서남부권(37.9%), 북부권(37.0%) 순으로 나타남.
- 남자(40.5%)와 여자(39.3%) 모두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표 3-13] 독서량 부족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	다른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바빠서	몸이 불편하여 책읽기가 어려움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읽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사불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육아, 문맹, 시력저하 등)
2017년	33.1	31.8	8.3	7.9	2.6	1.2	1.1	1.9	1.4	10.0	0.6
2019년	34.4	28.4	8.8	6.2	2.5	1.2	0.6	1.7	2.7	12.9	0.6
2021년	34.8	30.2	6.4	6.3	1.9	1.7	0.9	0.7	3.9	12.6	0.6
2023년	40.0	20.8	3.1	8.5	1.6	0.9	0.1	0.1	2.5	20.7	1.7
< 지역 별 >											
중부권	43.9	19.6	1.7	4.9	0.3	0.9	0.2	0.2	1.0	25.1	2.2
북부권	37.0	16.4	4.9	14.1	2.5	0.4	0.2	0.2	1.6	20.9	1.7
서남부권	37.9	24.6	3.4	8.7	2.4	1.2	0.0	0.0	4.5	16.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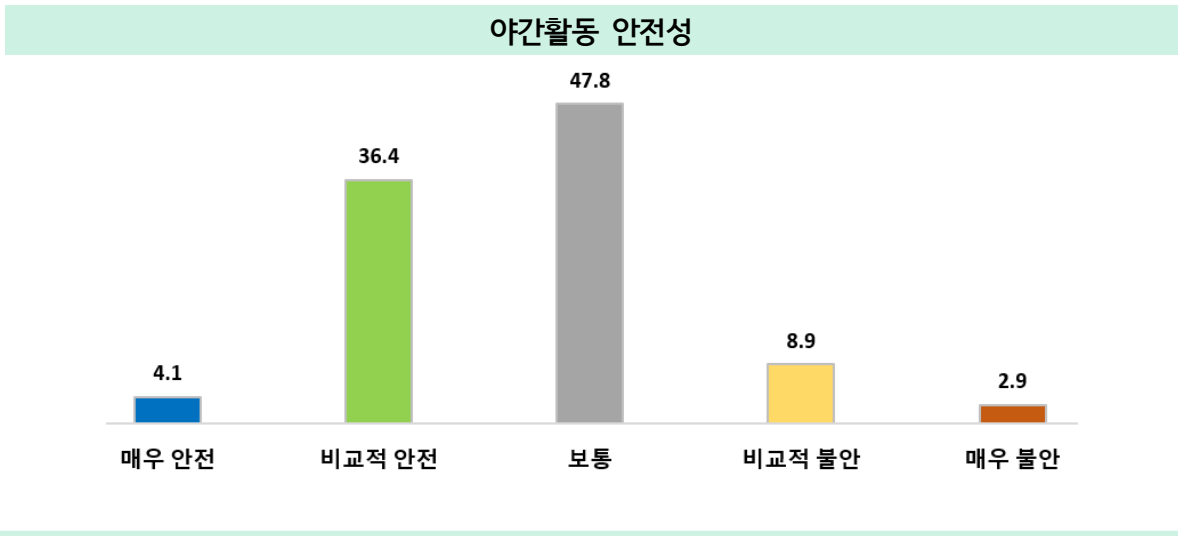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14 야간활동 안전성

야간활동 및 보행 「보통」

• 야간 활동 및 보행 안전성에 대해 「보통」 응답이 47.8%로 가장 많고, 「안전하다」 40.5%, 「불안하다」 11.7% 순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 응답은 2021년 43.9%에서 2023년 40.5%로 감소한 반면, 「불안하다」 응답은 2021년 9.6%에서 11.7%로 증가함.
- 지역별로 중부권(68.0%), 서남부권(44.6%)은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안전하다」(66.1%)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49.0%)와 여자(46.4%) 모두 「보통」 응답이 가장 많고, 「안전하다」 응답은 남자(41.2%), 여자(39.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는 응답은 70세 이상(42.9%)이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40대(21.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4] 야간활동 안전성

(단위: %)

구 분	계	안전하다			보통	불안하다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2017년	100.0	35.8	6.3	29.5	48.9	15.3	12.8	2.5	
2019년	100.0	44.7	7.3	37.4	42.1	13.1	11.4	1.8	
2021년	100.0	43.9	8.4	35.4	46.5	9.6	8.6	1.0	
2023년	100.0	40.5	4.1	36.4	47.8	11.7	8.9	2.9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18.6	2.8	15.7	68.0	13.4	10.7	2.7	
북 부 권	100.0	66.1	6.8	59.4	27.8	6.1	3.7	2.4	
서 남 부 권	100.0	41.7	3.4	38.3	44.6	13.7	10.5	3.3	
< 성 별 >									
남 자	100.0	41.2	3.5	37.7	49.0	9.8	7.5	2.3	
여 자	100.0	39.7	4.7	35.0	46.4	14.0	10.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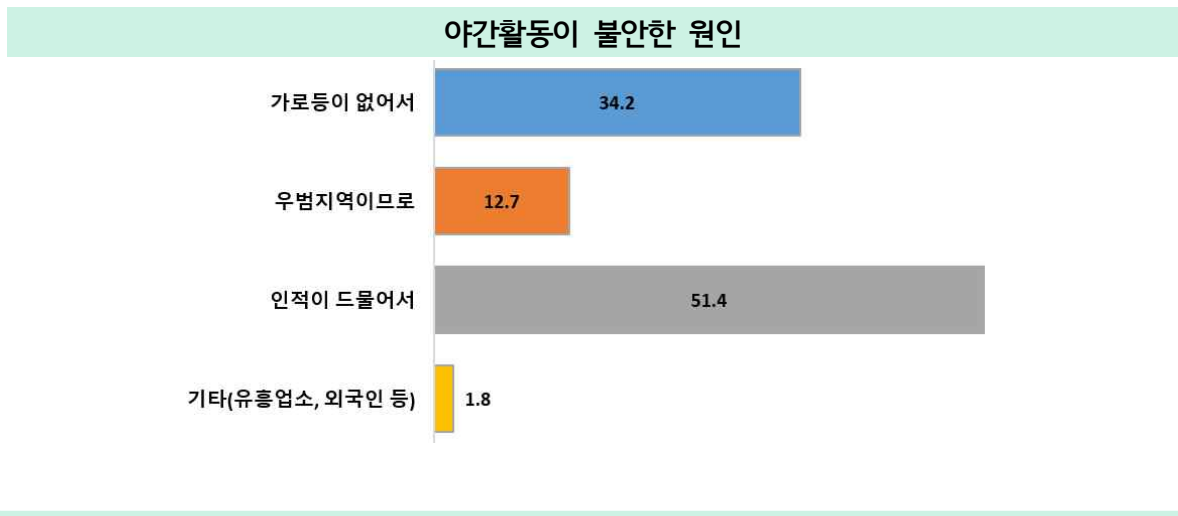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인적이 드물어서」

- 야간 활동 및 보행이 「불안하다(비교적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안한 원인은 「인적이 드물어서」(51.4%) 응답이 가장 많고, 「가로등이 없어서」(34.2%), 「우범지역이므로」(12.7%) 순으로 나타남.

-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은 2021년 48.3%에서 2023년 51.4%로 증가함.
- 지역별로 중부권은 「가로등이 없어서」(54.9%)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51.1%), 서남부권(61.5%)은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50.5%)와 여자(52.2%) 모두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50대는 「가로등이 없어서」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인적이 드물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5]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단위: %)

구 분	계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유흥업소, 외국인 등)
2017년	100.0	35.0	11.3	49.6	4.0
2019년	100.0	36.8	11.8	49.5	1.8
2021년	100.0	50.3	1.4	48.3	
2023년	100.0	34.2	12.7	51.4	1.8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54.9	8.1	37.1	0.0
북 부 권	100.0	32.8	10.1	51.1	5.9
서 남 부 권	100.0	20.0	16.5	61.5	2.0
< 성 별 >					
남 자	100.0	43.5	6.0	50.5	0.0
여 자	100.0	26.5	18.2	52.2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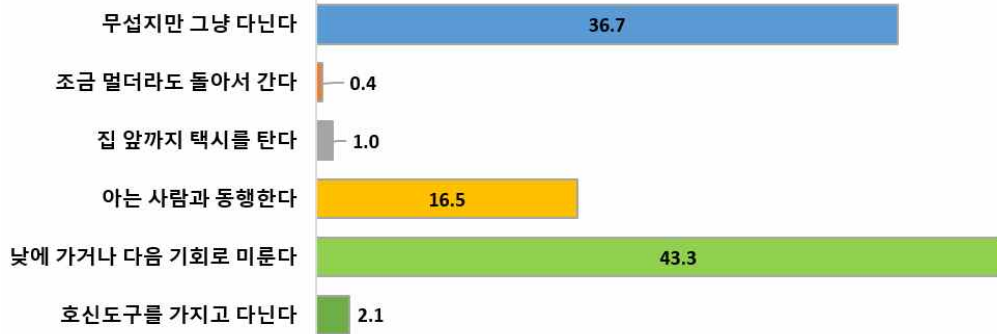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야간 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으로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43.3%) 응답이 가장 많고,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36.7%,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16.5% 순으로 나타남.
-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응답은 2021년 40.2%에서 2023년 43.3%로 증가한 반면,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은 41.7%에서 36.7%로 감소함.
- 지역별로 중부권은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38.6%), 북부권은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79.9%)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57.3%)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54.3%)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57.0%)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30대와 40대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표 3-16] 야간활동이 불안할 때 대처방법(행동)

(단위: %)

구분	계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조금 멀더라도 돌아서 간다	집 앞까지 택시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호신도구를 가지고 다닌다	기타
2017년	100.0	41.4	9.4	14.2	9.5	25.0	0.2	0.2
2019년	100.0	49.9	8.2	10.4	7.5	21.6	1.8	0.6
2021년	100.0	41.7	3.4	4.1	6.7	40.2	0.0	3.9
2023년	100.0	36.7	0.4	1.0	16.5	43.3	2.1	
< 지역별 >								
중부권	100.0	24.9	0.0	2.8	38.6	33.7	0.0	
북부권	100.0	79.9	2.8	0.0	2.8	14.5	0.0	
서남부권	100.0	34.2	0.0	0.0	4.4	57.3	4.1	
< 성별 >								
남자	100.0	54.3	0.0	1.3	13.1	26.7	4.6	
여자	100.0	22.3	0.7	0.8	19.3	57.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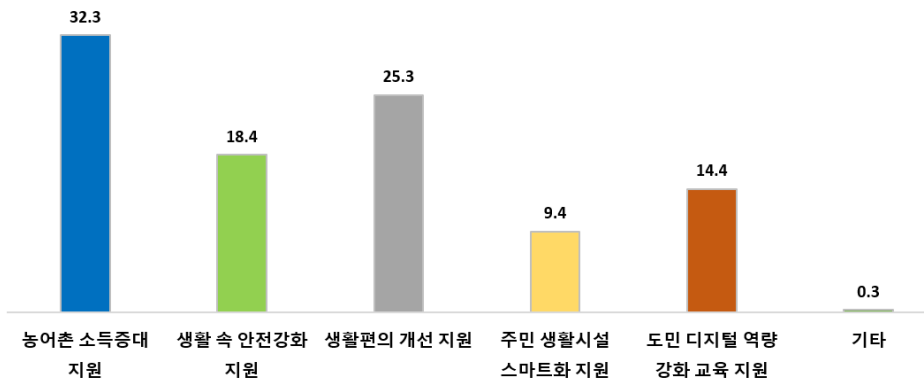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17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자율작업 트랙터 개발, 드론활용 등)」 응답이 32.3%로 가장 많고, 「생활편의 개선 지원(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등)」 25.3%,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보행자 안심알람, IoT 기반 농작물 절도 예방 등)」 18.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34.4%), 중부권(31.5%), 북부권(29.5%) 순으로 나타남.
- 남자(32.0%)와 여자(32.5%) 모두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와 30대는 「생활편의 개선지원), 40대는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 50대, 60대, 70세 이상은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표 3-17]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지원분야

(단위: %)

구분	계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	생활 속 안전강화 지원	생활편의 개선 지원	주민 생활시설 스마트화 지원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기타(모름 등)
2023년	100.0	32.3	18.4	25.3	9.4	14.4	0.3
<지역별>							
중부권	100.0	31.5	24.2	22.8	6.3	15.2	0.0
북부권	100.0	29.5	17.0	21.0	12.6	19.7	0.1
서남부권	100.0	34.4	14.9	29.6	9.9	10.7	0.6
<성별>							
남자	100.0	32.0	17.4	25.5	9.8	14.7	0.5
여자	100.0	32.5	19.4	25.0	9.0	14.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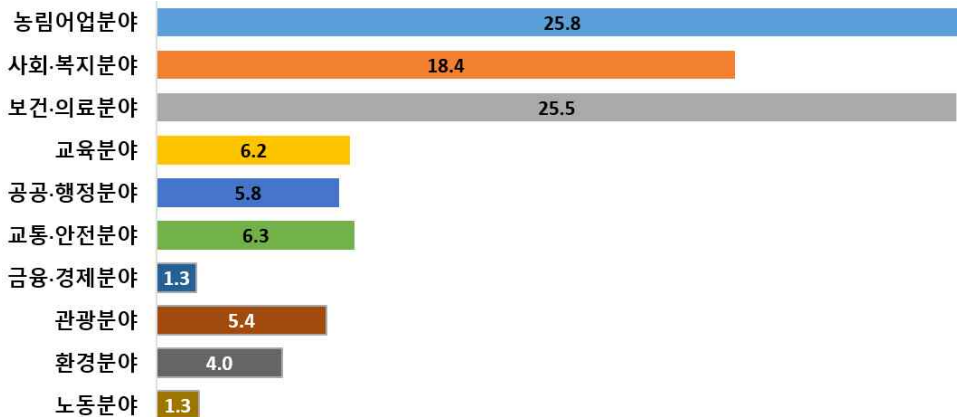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18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농림어업분야」

- 거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분야로는 「농림어업분야」(25.8%) 응답이 가장 많고, 「보건·의료분야」(25.5%), 「사회·복지분야」(18.4%)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30.6%), 북부권(26.2%)은 「농림어업분야」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보건·의료분야」(28.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농림어업분야」(26.7%), 여자는 「보건·의료분야」(26.2%)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농림어업분야」 응답이 가장 많고, 「농림어업분야」 응답은 60대(2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표 3-18]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2개까지 중복응답)

(단위: %)

구분	계	농림어업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교육분야	공공·행정분야	교통·안전분야	금융·경제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노동분야	기타
2023년	100.0	25.8	18.4	25.5	6.2	5.8	6.3	1.3	5.4	4.0	1.3	
<지역별>												
중부권	100.0	30.6	23.9	21.7	4.5	1.9	6.6	1.3	4.1	5.0	0.5	
북부권	100.0	26.2	15.5	25.7	7.2	6.9	5.6	1.5	2.8	5.5	3.2	
서남부권	100.0	22.1	15.6	28.4	7.0	8.2	6.4	1.2	7.7	2.4	1.0	
<성별>												
남자	100.0	26.7	16.4	24.8	7.0	5.9	6.4	1.3	6.0	3.8	1.6	
여자	100.0	24.8	20.8	26.2	5.1	5.7	6.2	1.2	4.7	4.2	1.0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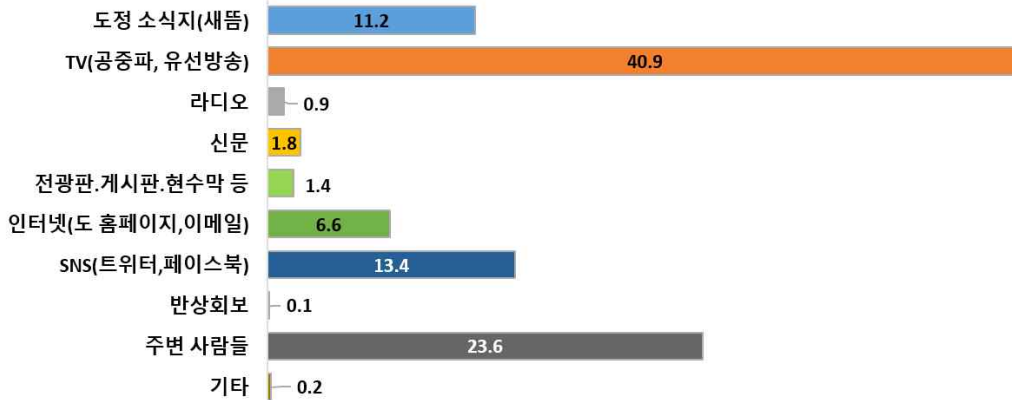
3-19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TV」를 통해 획득

- 전라남도 도정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TV(공중파, 유선방송)」응답이 40.9%로 가장 많고, 「주변 사람들」 23.6%, 「SNS(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13.4% 순으로 나타남.

- 「TV」를 통하여 도정정보를 습득한다는 응답은 2021년 40.4%에서 2023년 40.9%로 증가함.
-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TV」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42.6%), 서남부권(42.1%), 중부권(37.9%) 순으로 나타남.
- 남자(38.0%)와 여자(44.3%) 모두 「TV」를 통하여 도정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 15~29세, 40대는 「SNS」를 통하여 습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TV」응답이 가장 많음.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표 3-19] 행정정보 획득 매체-(1)전라남도 도정

(단위: %)

구분	계	도정 소식지(새뜸)	TV(공중파,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전광판.게시판.현수막 등	인터넷(도 홈페이지,이메일)	SNS(트위터, 페이스북)	반상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
2017년	100.0	6.5	47.8	4.4	1.9	5.3	15.8	7.9	0.2	10.0	0.3
2019년	100.0	9.5	41.2	2.2	1.7	6.8	11.5	15.9	0.4	10.5	0.2
2021년	100.0	14.9	40.4	0.4	4.3	4.0	6.6	12.8	0.2	14.6	1.9
2023년	100.0	11.2	40.9	0.9	1.8	1.4	6.6	13.4	0.1	23.6	0.2
<지역별>											
중부권	100.0	14.0	37.9	0.5	2.6	1.6	6.2	16.3	0.2	20.6	0.0
북부권	100.0	6.9	42.6	1.1	1.4	1.2	2.7	12.8	0.0	31.4	0.0
서남부권	100.0	11.7	42.1	1.1	1.4	1.4	9.1	11.7	0.0	21.2	0.4
<성별>											
남자	100.0	12.5	38.0	1.1	2.0	1.0	10.5	15.5	0.1	19.1	0.2
여자	100.0	9.7	44.3	0.7	1.5	1.8	2.1	11.0	0.0	28.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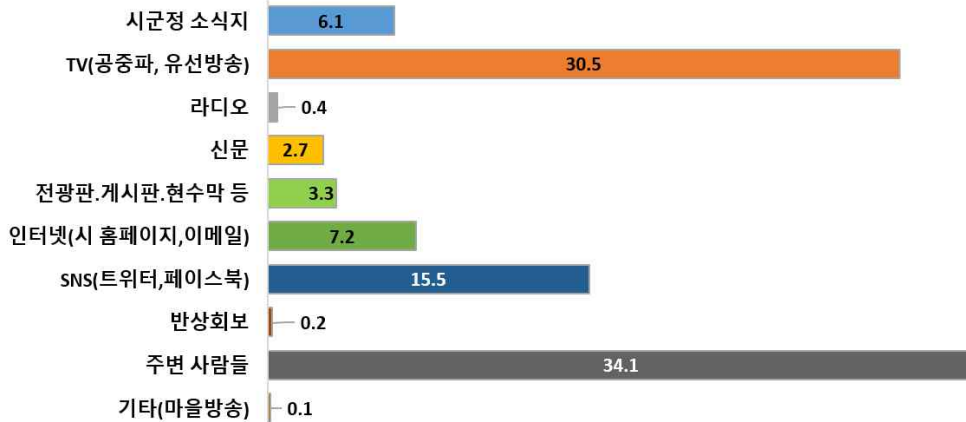
자료: 2023년 신안군 사회조사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주변 사람들」을 통해 획득

- 新安군정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주변 사람들」 응답이 34.1%로 가장 많고, 「TV(공중파, 유선방송)」 30.5%, 「SNS(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15.5% 순으로 나타남.
-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습득한다는 응답은 2021년 24.5%에서 2023년 34.1%로 증가함.
- 지역별로 북부권(33.3%), 서남부권(33.3%)은 「주변 사람들」 응답이 가장 많고, 중부권(33.9%)은 「TV」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남자(28.5%)와 여자(40.7%) 모두 「주변 사람들」 응답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15~29세, 30대, 40대는 「SNS」, 60대는 「TV」, 50대와 70세 이상은 「주변 사람들」 응답이 가장 많음. 연령이 높을수록 「주변사람들」, 연령이 낮을수록 「SNS」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표 3-20] 행정정보 획득 매체-(2)신안군정

(단위: %)

구분	계	군정 소식지	TV(공중파,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전광판.게시판.현수막 등	인터넷(시 홈페이지,이메일)	SNS(트위터,페이스북)	반상회보	주변 사람들	기타(마을방송)
2017년	100.0	2.4	49.7	1.3	3.3	3.7	22.9	6.9	0.5	9.1	0.3
2019년	100.0	3.2	38.3	1.6	2.8	6.9	19.1	13.9	1.4	12.5	0.2
2021년	100.0	4.8	23.5	1.6	3.5	9.5	13.2	14.6	0.6	24.5	4.2
2023년	100.0	6.1	30.5	0.4	2.7	3.3	7.2	15.5	0.2	34.1	0.1
< 지역별 >											
중부권	100.0	0.8	33.9	0.3	5.4	2.1	7.8	19.5	0.6	29.5	0.0
북부권	100.0	4.7	31.5	0.9	1.3	3.7	2.1	22.5	0.0	33.3	0.0
서남부권	100.0	10.7	27.4	0.3	1.4	4.0	9.6	8.6	0.0	37.8	0.2
< 성별 >											
남자	100.0	8.1	27.9	0.2	3.2	2.9	10.9	17.9	0.3	28.5	0.2
여자	100.0	3.8	33.5	0.7	2.0	3.8	2.8	12.6	0.1	40.7	0.0

자료: 2023년新安군 사회조사